

미술사 자취 탐구 · 현대적 관점 재해석

전주 한옥마을 위치 사용자공유공간 planC서
내달 4일까지 '탐색하고 위치하기' 무료 전시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사용자공유공간 planC에서 '탐색하고 위치하기' 전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현대 예술가들이 미술사의 자취를 탐구하며 던진 질문과 그에 대한 시각적 해석을 담아내고 있다. 전시 운영시간은 11시부터 17시까지며, 휴관일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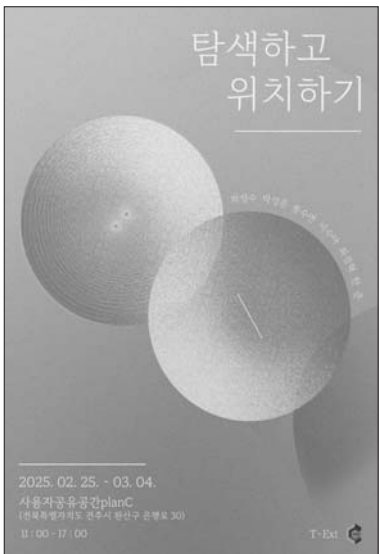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참여 작가들은 미술사에서 다뤄진 개념들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작품에 반영했다. 특히 시각예술 작업을 진행하며 이론적 공부와 미술사적 이해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술과 사유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청년 예술인들의 스터디 그룹 T-Ext(박성수, 박성은, 송수연, 이수아, 최정현, 한준 작가)의 연구 과정에서 비롯된 전시로, 2024년 2월 시작해 13회에 걸쳐 온·오프라인 모임과 회의를 통해 미술사적 텍스트를 읽고 논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전시장에는 각 작가들의 기존 작업들, 연구를 진행하며 변화된 형식의 작업들이 전시돼 있으며, 전시의 취지에 맞게 본인이 다룬 사조를 중심으로 한 글이 함께 소개된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발표를 넘어, 미술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이 마주한 한계와 사유의 흐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시대적 맥락 속에서 예술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작가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작업을 자리 잡을 것인가 '탐색하고 위치하기'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의 예술이 여전히 사회적·문화적 현실과 깊이 연결돼 있음을 환기시킨다.

한편 전시는 오는 3월 4일까지 이어지며, 전주 사용자공유공간 planC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탐색하고 위치하기 포스터

유리 위에 펼쳐진 숲의 아름다움

정읍 달하미술관, 4월 15일까지 지역작가 조명 1차 전시 개최

정읍시가 지역작가 조명 전시를 개최하며 강희경 작가의 유리 회화 작품을 통해 자연이 주는 생명의 감동을 선보인다.

시가 운영하는 달하미술관은 2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역작가 조명 1차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4명의 작가 중 강희경 작가의 '안전한 숲 Safe Forest' 전시로 시작된다.

강희경 작가는 유리 회화 20점을 선보이며 신태인·연지·수성 달하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유리 회화는 판유리에 그림을 그린 뒤 굵거나 녹여 질감을 살리고, 유리와의 조화를 접목해 빛을 활용하는 독특한 작업 방식으로 제작된다.

작품은 산책길에서 마주하는 자연의 생명력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심리적 안식과 생태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생태계의 소중함을 환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휴관일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햇빛에 의한 작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야간 관람이 가능하다. 단, 신태인 전시관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정읍 달하미술관, 4월 15일까지 지역작가 조명 1차 전시 개최

남원시, 춘향제 성공 개최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 가져

남원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개최될 제95회 춘향제 사전 준비를 위해 25일 시청에서 춘향제 행사 1차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제95회 춘향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남원 관현루 일원에서 개최되며,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최경식 시장 주재로 실과소, 읍면동장 등 50여 명이 참석, 행사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 및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서별 담당업무를 지정해 행사 추진계획



등을 청취했다.

최 시장은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실무부서와 협력부서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각 행사 분야별로 주인의식을 갖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 입장에서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올 춘향제는 소리가 메인 테마로 한국의 소리, 세계의 소리, 융합의 소리로 크게 분류해 100여 가지의 다양한 공연을 구성해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이며, 더본코리아 협업 기반 F&B 운영,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대동길놀이 확대 추진, 유채꽃밭 신규 조성 등은 남원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춘향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축제로 자리 잡은 만큼, 더욱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전통문화전당-학교법인 성·안나 교육재단, 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25일 세미나실에서 학교법인 성·안나 교육재단(설립이사장 황경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통문화 진흥 및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 △전통문화 주제의 교육·체험·전시·공연 등 기획 및 공동 추진 △보유한 콘텐츠 제공 및 활용 △보유한 시설의 이용 및 편의 제공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23회 완주삼례딸기대축제' 3월 7~9일 개최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오는 3월 7일부터 9일까지 전북 완주군 삼례농협 뒤 공영주차장에서 제23회 완주삼례딸기대축제에 함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삼례농협과 완주문화재단이 주관이 되어 3일간 딸기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체험, 이벤트로 가득 채워지며, 방문객들에게 즐겁고 달콤한 봄날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개막식은 3월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개막식을 포함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형딸기만들기 퍼포먼스와 딸기농악 퍼레이드,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오프닝공연 및 EDM파티, 아



이들과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딸기 쏘나무지랑대회,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부대행사로 딸기수확체험, 딸기 상설판매장 운영, 딸기스탬프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준비되어 있으며, 딸기를 주제로 한 50여개의 베이커리 및 푸드존, 체험 및 판매존도 상시 운영된다.

관광사업 추진 방향 · 계획 공유

전북문화관광재단, 통합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5년 관광사업 통합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관광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 2025년 주요 관광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했다.

1부에서는 관광사업본부와 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의 2025년 사업 추진 방향 설명을 시작으로 분야별 사업 소개 및 공모 내용을 전달했다. 2부에서는 설명회를 찾은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B2B 상담을 진행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 온라인 플랫폼 '투어라즈(tourazkr)' 활용 안내를 통해 관광업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재단은 전북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및 여행 상품 개발, 지역 간 네트워크 확대 및 교류 활성화, 전북 관광 브랜드의 국내외 홍보 마케팅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 테마인 태권도, 음식, 무형유산, 전통문화 등 매력 있는 콘텐츠로 해외관광객 4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한 관광 일자리 창출과 기업 매



출 증대를 위해 관광 분야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국내외 판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 관련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MICE 산업 육성,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지역 관광자원 특화사업 발굴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 경쟁력을 위해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설명회를 통해 관광업계 관계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북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올해는 보다 체계적인 관광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주요 관광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을 바탕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향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종단 형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원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었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었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